

# 카드사들, 업계별 수수료협상 온도차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업계별 온도차가 점차 엇갈리고 있다.

10일 자동차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5개 카드사(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신한·삼성·롯데·BC카드와는 아직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협상하지 못했다.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던 BC카드를 제외하고 내일부터 신한과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는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

BC카드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만약 14일까지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BC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BC카드를 결제망으로 사용하는 우리카드도 사용이 막히게 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카드계약 해지'란 강수를 들 정도로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계약해지를 예고했던 10일에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

### 현대차, 신한·삼성·롯데·BC카드 협상 불발 자동차구매, 카드보다 캐피탈·뱅크론 이용 유통업계, 대형마트 등 현금비 카드 이용 비중 ↑

했지만, 카드 점유율 1~2위에 달하는 신한과 삼성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분간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 대리전'으로 표현했다. 만약 카드사가 일방적인 인상안을 고수한다면 자동차업계 전체로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반면 유통업계는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적자가 불가피하며 울상이다.

유통업계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요구한 수수료 인상분은 평균 0.14%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수백억

원의 추가 지출 부담이 생긴다며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밝힌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그러나 현대차와 같이 '계약해지 강수를 두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카드사에 인상해야 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업권별 수수료 협상의 온도차는 '카드 민감도'와 '소비패턴 차이'로 분석된다.

카드 이용 비중이 높지 않은 자동차업계와 달리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카드결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자동차는 카드보다는 캐피탈이나 뱅크론 등을 이용해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카드업계는 "자동차

차업계에서는 일부 카드 결제를 잠시 막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카드결제가 안되더라도) 아쉬울 것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현금보다 카드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액까지 카드를 이용할 정도로 카드이용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 리도 카드사용이 막힌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는 새로 구입하기까지 많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마트 등 유통업계 이용 빈도는 일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카드 민감도가 큰 유통업계는 대형가맹점이지만 카드사와 협상력에서 크게 우위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두 업권은 카드 이벤트 수혜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카드업계의 마케팅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반면 마트는 카드 할인 이벤트 등에 민감한 편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사 마케팅 때문에 선택 차종을 바꾸거나 브랜드를 바꾸는 사례를 들었던 적 없다"면서 "오히려 카드사들이 건당 최대 수천만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동차구매를 유치하려고 자체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자동차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물론 대형마트도 과거에는 카드가맹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강력 반발한 적 있다. 지난 2004년 이마트는 BC카드가 수수료를 올릴 것이라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이마트에서 BC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BC카드는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0여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하락하는 영업이익을 민회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전처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간 소비자가 발길을 돌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 연일 하락세 '살까 말까' 투자자 고민 깊어져

### 증권가 "올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정상화 가능성 높아...매수 의견"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를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잠깐 반등하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팔자 행보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4만4000원 수준이다. 현재를 저점으로 보고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4만원 선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야 할지 투자자들의 장교가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는 78만8047명으로 SK하이닉스(30만9613명)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시한 50대 1 액면분할로 삼성전자 주식이 늘어났고 가격이 4만~5만원대로 낮아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된 결과다. 단순 계산으로 5000만 인구 중 80만명이 삼성전자 주주라는 뜻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늘어났지만 주가는 지난해 5월4일 액면분할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5월4일 5만3000원에서 시작된 이 회사 주가는 같은 달 15일 4만원대로 폭 떨어졌다. 12월에는 증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3만8200

원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초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원 넘게 사들이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주가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수출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

지난달 27일 이후 증권사들은 6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2650억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현 주가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박원재 연구원은 "반도체 환경은 부정적이지만 스마트폰 개선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며 "실적의 관건은 반도체인데 올해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 급반등은 쉽지 않다. 1분기 실적도 반도체 부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박유아 연구원은 "낸드업황의 턴어라운드와 D램 제조감소 등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아몬드 전시체험 부스 운영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제24차 학술대회'에 후원사로 참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뷰티 간식 아몬드의 효능을 알리는 전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 '에타 면제'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본격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원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팀을 구

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지원, R&D 등을 통합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전남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마스터플랜이다.

전남도는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구축되면 기업 유치 60개사, 취업 유발 1430명, 생산 유발 2236억 원,

부가가치 창출 734억 원의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 주관으로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해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응하게 된다.

## 오늘 Lotto 제 849회차 당첨결과 (2019년 2월 9일 추첨)

5 13 17 29 34 39 + 3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7	1,158,252,883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6	58,602,08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682	1,223,60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3,125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51,371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일업)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